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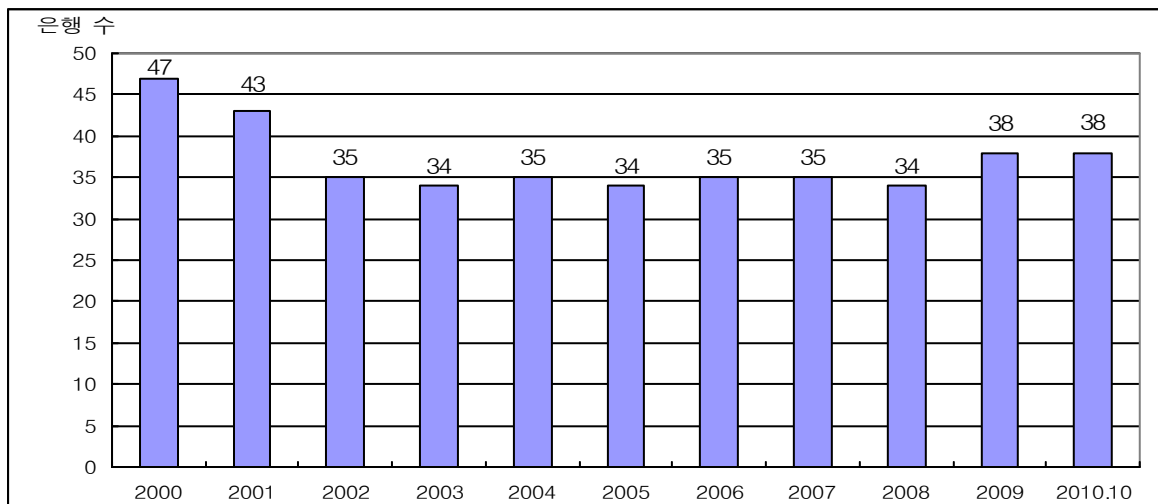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현황

1. 은행산업 개황

□ 2010년 10월 말 기준, 38개 시중은행 운영

- 1993년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은행산업은 1개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Kazakhstan: NBK)과 다수의 시중은행으로 구성됨. 1994년에는 효율적인 금융 시장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ion Agency of Kazakhstan: FSA)이 설립됨.
-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1991년 12월 직후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설립되어 1992년 말 기준 총 204개의 은행이 운영됨.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시중은행 수가 급격히 감소함.

<그림 1> 카자흐스탄 시중은행 수 변동추이



자료: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청.

- 2010년 10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은 1개의 중앙은행과 38개의 시중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말 총자산 기준 3대 은행은 카즈코메르츠은행(Kazkommertsbank), 할릭은행(Halyk Bank) 및 비티에이은행(BTA Bank)인 것으로 나타남.
- 카즈코메르츠은행이 2009년 말 기준 총자산 174억 달러, 예금잔액 86억 달러로 예금잔액 기준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임.

□ 은행산업 총자산, GDP 대비 81.6% 차지

- 2010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 은행의 총자산 합계액은 1,125억 달러로 GDP의 81.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동 비율은 주변 국가인 우크라이나(96.2%), 터키(86.6%) 및 슬로바키아(88.5%)와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이나 러시아(76.1%) 및 루마니아(70.7%)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의 2010년 말 기준 예금총액은 470억 달러, 1인당 평균예금액은 4,365달러(1인당 GDP 7,976달러의 55%)

<표 1> 구소련 및 동유럽 주요국의 은행산업 비교

국 가 명	총자산 (억 달러)	총자산/GDP (%)	총예금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1인당 예금액 (달러)
카자흐스탄	1,125	81.6	470	7,976	4,365
우크라이나	1,220	96.2	531	2,676	2,103
터 키	6,285	86.6	3,712	9,795	3,508
슬로바키아	782	88.5	511	16,575	7,966
러 시 아	11,152	76.1	6,558	10,547	4,587
루 마 니 아	1,095	70.7	559	6,873	3,870

주: 2010년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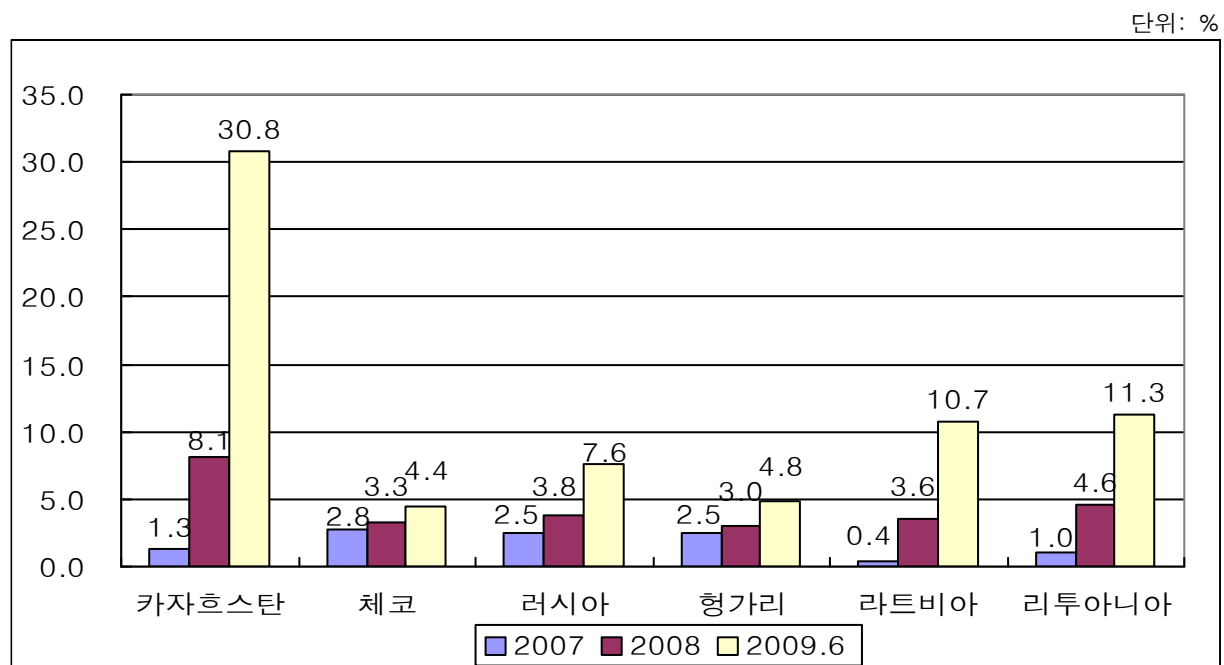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Kazakhstan Commercial Banking Report, Q1 2011

2. 부실은행 채무재조정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개 시중은행의 채무불이행 선언

-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은 높은 해외차입 의존도(전체 차입의 50% 이상), 건설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도한 위험노출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 NPL)이 급증하고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 은행산업의 총 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중은 2008년 말에 8.1% 수준이었으나 2009년 6월에 30.8%를 기록함. 이후 2011년 2월 말 현재까지 30%를 상회하고 있음.
- 부실여신 비중은 주변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자산건전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었음을 의미

<그림 2> 카자흐스탄 및 주변 주요국의 부실여신 비중 비교



주: 라트비아의 2009년도 통계치는 2009년 5월 기준임.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연구”, 2010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차입 여건 악화, 자산 부실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탕계화 평가절하 조치에 따라 카자흐스탄 은행들의 외채 상환부담이 가중됨.
- 2009년 3월 알리안스은행(Alliance Bank)을 시작으로 4개 시중은행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 2009년 4월 20일 비티에이은행은 유로채권, 신디케이트론 등 150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지급중단을 선언함.

□ 채무불이행 은행의 국유화 및 채무재조정 추진

- 4개 은행의 채무불이행 선언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은행에 대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투입 및 유동성을 지원함. 또 삼룩카즈나(Samruk-Kazyna) 국부펀드 신설을 통해 신규 여신을 공급하고, 일부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함.
- 비티에이은행은 해외차입 여건 악화,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자산부실화 등의 영향으로 2009년 2월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함.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를 통해 동 은행 지분의 75.1%를 인수하며 국유화함.
- 국유화된 직후 2009년 4월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고, 이후 실시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삼룩카즈나 국부펀드로 동 은행 지분의 81.5%를 보유하게 됨.
 - * 동 은행의 채무는 16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축소
- 또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은 카자흐스탄 제4위 은행인 알리안스은행에 대해서도 지분의 76%를 인수하여 국유화함.

<표 2> 채무불이행 은행의 채무재조정 현황

은행명	채무불이행 발생시기	채무재조정 진행상황
알리안스은행(Alliance Bank)	2009년 3월	2010년 3월 협상 완료 (46억 달러)
비티에이은행(BTA Bank)	2009년 4월	2010년 10월 협상 완료 (167억 달러)
아스타나파이낸스(Astana Finance)	2009년 5월	협상 진행중
테미르은행(Temir Bank)	2009년 11월	2010년 6월 협상 완료 (14억 달러)

자료: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청.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부실화된 비티에이은행의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동 은행 지분의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는 비티에이은행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카자흐스탄 대형 은행의 인수를 통해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 외국계 은행의 진출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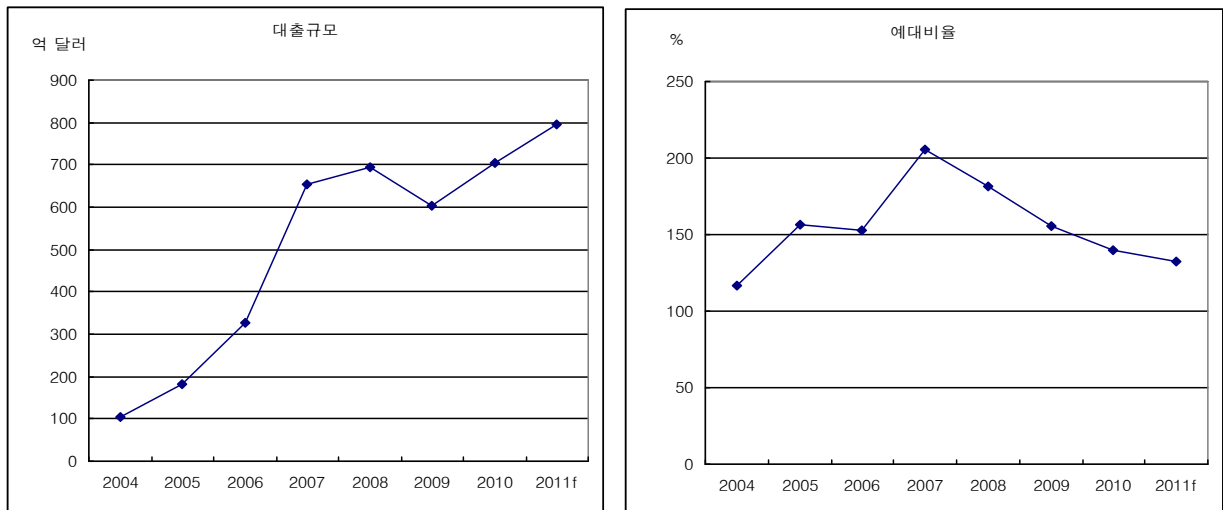
- 2005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WTO 가입을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진출이 활발해짐.
- 2010년 말 기준 총 16개의 외국계 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진출함.
 - * 국민은행은 2008~10년 중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ank Center Credit: BCC)의 지분 41.9%를 인수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08년에 국내은행 최초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을 설립
- 은행산업 관련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 외에도 종교, 정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아랍권 국가들이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진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알히랄 이슬라믹 은행(Al-Hilal Islamic Bank)이 이슬람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증가세 둔화 및 예대비율 하락

- 2000년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급증하던 카자흐스탄 은행의 대출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출 억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됨.
- 2004~08년 중 연평균 53.5%의 증가율을 기록한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2009년 총 대출규모는 전년 대비 -13.3%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억제 추세로 인한 은행들의 예대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2007년에 약 206%에 달했던 예대비율이 2010년에는 140% 수준까지 하락함.
- 한편,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억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을 축소시키는 등 대출 대상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알리안스은행은 부동산 대출 비중을 축소시키는 대신, 도소매업 관련 대출비중을 총 여신의 50% 수준까지 높일 예정임.

<그림 3>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대출규모 및 예대비율 변동추이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3. 카자흐스탄의 은행산업 전망

□ 국유화 은행 매각추진에 따른 외국계 은행의 진출확대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된 자국 은행들의 새로운 인수자를 모색하고 있음.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은행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외국계 자본의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계 은행들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잠재력,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진출에 적극성을 보임.

-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카자흐스탄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들이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에 진출할 경우 동 산업 선점 및 자본이득 획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외국계 은행들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됨.

□ 2011년 은행산업 총 대출규모 소폭증가 예상

-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은행들의 채무재조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카자흐스탄 경제가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은행산업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대출규모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부실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출확대를 위한 해외차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총 대출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약 800억 달러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